



만상(晩霜)으로 뒤덮인다.
지키고자 한 세계가,
함께하고자 맞잡은 두 손이,
나아갈 길을 찾아 헤매는 눈앞이.

누구 하나 이것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이가 분명 막으려 했음에도,
세계의 섭리는 다만 잔혹하여,
만상(萬象)이 숨지고 있다.

마도서대전 RPG 마기카로기아 팬시나리오 캠페인

The Glare of Aiden

아덴의 섬광

晩霜を溶かす
만상을 녹인다

만상을 녹인다

晩霜を溶かす

디라스티트(@IG_Eugene/@restinhelio)

기본 정보

플레이어: '이윅고 빛은 놓여나며' 참여 인수와 같음.

리미트: 8씬.

PC 조건: '아덴의 섬광'.

플레이 타임: 불명(마지막 시나리오이므로 RP를 예측할 수 없음)

플레이어 체감 난이도: ★★★★★☆ ~ ★★★★★★

(공식 3계제 시나리오보다 약간 ~ 매우 어려움. 4계제여도 어려움.)

※ 본 시나리오는 마기카로기아 기본 룰북, 황혼선서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 개요에는 지난 시나리오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개요 이후로는 GM 데이터입니다.

※ 2022. 3. 13. 마스터썬에 기재되지 않은 핸드아웃 하나의 '공개 타이밍' 명시.

시나리오 소개

'아덴의 섬광The glare of Aden' 캠페인의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마기카로기아 기본 룰북과 황혼선서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마기카로기아 세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매우 많기에 적어도 룰북을 한 번 끝까지 읽어본 뒤에 플레이하시길 권합니다.

개요

자날파토스가 【우주란】을 사용해 '세계 붕괴'를 해결하는 것에만 쓰일 이경으로 변하는 것을 저지한 여러분 앞에 시미즈 나기사가 날아 내려오더니 두 가지 사실을 전합니다. 하나, 천애에서 이경 '등불 마을'의 마법재앙을 예지했다. 둘, 원탁의 회의장인 서궁에서 '아덴의 섬광'을 찾는다.

【우주란】이 자날파토스를 시험하려고 만들었던 새로운 비밀의 문은 닫혔습니다. 또한, 첫 임무에서 여러분이 구하지 못한 우자와 똑 닮았으며 자신을 '등불 마을'의 마법사라고 밝힌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도 시작이자 끝일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다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마침내, '아덴의 섬광'으로서 서궁으로 향합니다.

이하 GM 정보입니다.

배경

마지막 시나리오의 시작은 지난 시나리오의 엔딩 페이지에서 곧장 이어집니다. 【우주란】이 불러온 세계법칙 때문에 학원장을 찾지 못했던 시미즈 나기사는 세계법칙이 해제되기 무섭게 PC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새로운 비밀의 문과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로부터 얻은 정보는 평범한 마법사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짚어준 PC들에게 가혹한 임무가 부과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테지요.

서궁에서는 이미 세계 붕괴에 대해 알 만큼 알게 된 PC들의 기억을 앗아가는 대신 사태를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날파토스가 스스로 이경이 되어 다른 세계의 용적 부족을 해결하려고 했듯, ‘특이한 이름’을 가진 금서도 용적 부족으로 붕괴하는 세계에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요.

원탁 소속 서궁들의 연구 결과, 이경 ‘겨울 왕국’에서 아기가 몇 명 태어남과 동시에 마을 하나가 마법적 허무에 집어 삼켜진 것은 명백히 ‘세계의 용적 부족’ 때문입니다. 서위를 잔뜩 배정해 암흑 문고에서 관리한 금서 《아덴의 숲》과 《자날파토스의 실책》은 ‘장소’의 이름을 가지기에 그 용적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아덴의 섬광이 뇌명정에서 회수한 금서 《내용 없는 뼈대》도 ‘내용이 없다’고 명시된 만큼 같은 효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세계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이경은 하나가 아니기에, 해당 이경의 속성에 가장 근접한 금서를 쓰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서궁에서 아덴의 섬광을 호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본래는 PC들이 첫 임무에서 회수한 금서 《영구동토》가 이경 ‘겨울 왕국’의 용적 부족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금서였으나, 오래 전 한 마법사가 해당 금서를 관리하던 서위를 쓰러트리고 금서를 빼돌려 이경 ‘등불 마을’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천애는 그 마법사,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가 이경 ‘등불 마을’에 마법재앙을 일으키며,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PC들 뿐이라고 예지했습니다. ‘시작이자 끝인 곳에서 아덴의 섬광은 자신만의 종장을 맞이하리라.’라고요.

무대

캠페인 마지막 시나리오의 무대는 도입 페이지에서는 원탁(기본 pp. 46, 202) 서궁, 메인 페이지에서는 이경 ‘등불 마을’(기본 p. 232)입니다. 금서 《영구동토》의 영향을 받은 해당 이경의 세계법칙은 **불간섭, 지각차단, 영역보정, 전투활성**입니다. 장면표는 「아덴의 섬광_병행 세계 장면표」를 사용합니다.

※ 아덴의 섬광_병행 세계 장면표 (2D6)

2	카페 앞. 열린 문 안에서 FM 라디오에서 「하늘의 은총」을 잔뜩 받은 ‘아덴의 섬광’이 겪어온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는 DJ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장면에 등장한 모두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시간의 흐름 표」를 한 번 굴려 효과를 적용한다. 이 효과는 한 번만 발생한다.
3	인파가 넘치는 광장. 멀찍이서 당신과 꼭 빼닮은 인물이 어지러운 인파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걸어간다. 저것은 이 세계의 당신일까? 썬 플레이어는 무작위로 특기 하나를 선택해 판정한다. 판정에 성공하면 원하는 마소를 2점 획득하나, 실패하면 「차단」 상태이상에 걸린다. 이 효과는 한 번만 발생한다.
4	밤의 길목. 이곳은 지평선이 평평하지 않고 약간 휘어있다. 휘어있는 만큼 지구보다 훨씬 작은 세계라는 뜻이겠지. 이곳은 당신이 잘 아는 인계의 풍경과는 다르다. 모든 것이 얼어붙으며 선택을 중용하던 그때와는 다르다.
5	상점가. 복직이는 손님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의 뺨에 온통 서리가 내린 것이 보인다. 춥다며 제 뺨을 부비는 손님들에게서 서리가 가루가 되어 떨어진다.
6	변화가. 건물 곳곳에 붙은 대형 모니터에서 ‘아덴의 섬광’의 ‘시작이자 끝인 이야기’가 이 등불 마을에서 일어난다는 광고가 지나가고, 그 자리에 모니터를 올려다보는 당신들의 모습이 선명히 잡힌다. 변화가를 지나던 사람들이 마치 연예인이라도 만난 것처럼 당신들의 사진을 찍는다. 장면에 등장한 모두가 <정열>로 판정한다. 실패하면 급하게 도망치느라 충전한 마소 1점을, 마소가 없다면 【마력】을 1점 잃는다.
7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가 우자였을 때 그의 집이 있던 곳.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나온 것은 낯선 사람이다. 이쪽을 수상하다는 듯이 보는 병행 세계의 주민에게 의심을 사지 않도록, 썬 플레이어는 무작위로 특기 하나를 선택해 판정한다. 실패하면 「운명 변전」이 발생한다.
8	길을 잃었다. 기억에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길을 찾으려고 했더니……. 길에 깔린 서리에 남은 발자국을 더듬어 간신히 낯선 건물들 사이를 벗어난다.
9	휴대전화 판매 매장 앞. 낯익은 SNS 촬영 화면이 지나간다. 인계에 있는 사람과 등불 마을에 있는 사람이 ‘아덴의 섬광’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다.
10	전철 플랫폼. 막 도착한 전철은 ‘아덴의 섬광’을 그린 멋진 일러스트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다. 도저히 탈 기분은 들지 않으나, 일러스트의 배경인 아덴의 숲은 묘한 안정감을 준다. 【일시적 마력】 2점이나 원하는 마소 2점을 획득한다. 이 효과는 한 번만 발생한다.
11	역 앞 로터리. 교복을 차려입은 학생들이 연극을 펼치고 있다. 주정뱅이 신들 흥내가 맛깔난 이 연극은 역시 ‘아덴의 섬광’이 겪은 이야기다. 장면에 등장한 누구든 <황금>으로 판정하여 성공하면 모금함 대신 놓인 모자 속에 섞인 ‘아가트다이몬의 반독약’ 한 개를 얻는다. 이 효과는 한 번만 발생한다.

NPC 설정

시나리오 등장 NPC들의 설정입니다. 롤플레이 및 조킹에 참고해주시시오.

◎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 랭크 5, 무소속 서적경. 장서 구성은 방문자. 이경 ‘등불 마을’에 마법재앙을 일으킨 원흉이자 금서 《영구동토》를 훔친 자입니다. 그의 정체는 아덴의 섬광의 첫 임무에서 PC들에게 협조했으나 빙의 심도가 너무 높아 죽음을 맞았던 우자로, 이름은 이자요이 하테나입니다. 초기 앵커는 이경 ‘등불 세계’에 있는 또 하나의 자신이며, PC들을 앵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아덴의 섬광’의 이야기를 대법전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퍼트리지 않았다면, 원탁은 PC들 전에 세계 붕괴에 대해 알게 된 마법사들의 기억을 지웠듯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PL이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묘사에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요이 하테나: 이경 ‘등불 마을’의 주민. 랭크 1의 월경자로 취급합니다. 마법전을 벌일 수는 있으나 여러 종류의 마법을 구사할 수 없기에 단장 하나도 격퇴하지 못합니다. 인계에 존재했던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가 병행 세계에 존재하는 자기 안에 모습을 숨겼기에 등장할 때 PC 중 하나에게 운명변전을 떨어트리고 맙니다.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는 이 모습으로 인터넷을 통해 등불 마을은 물론 인계까지 PC들의 이야기를 퍼트렸으며, 각인으로 그를 살피면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가 그에게서 분리되어 등장합니다.

◎ 이경 ‘등불 마을’의 사람들: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가 퍼트린 ‘아덴의 섬광’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으며, PC들을 보면 대부분 “아! 아덴의 섬광이구나?!”하고 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각인 하나를 가진 〈월경자〉로 취급하며 장서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하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마법사로서 각인 다섯 개를 가지고 계제 만큼의 장서 수를 확보한 ‘아덴의 섬광’은 어쩌다 하늘의 은총을 좀 많이 받은, 그래서 자기들과 비슷하면서 다른 이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공통 설정

‘아덴의 섬광’ 캠페인에서는 ‘마도서’라는 개념의 탄생과 이경 ‘자날파토스의 실책’의 형성 원인 등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설정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이는 마기카로기아 공식 설정이 아니며,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경 ‘자날파토스의 실책’	지금처럼 황폐하기 전에는 이경 ‘종말 세계’와 완벽히 대비되는 이상향, 대법전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이경 ‘영원 세계’였다. 그 세계는 모든 우자가 마법을 인지했고, 우자와 마법 생물은 그들의 고향에서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위대한 마법사’와 ‘자날파토스’는 바로 이 ‘영원 세계’ 출신이다. 위대한 마법사와 자날파토스는 자신들의 세계에 안배된 치명적인 함정을 깨달았다. 모든 세계에는 저마다 다른 용적(容積)이 있어 축복과 생명을 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너무나도 축복받은 세계에는 자연히 계속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세계는 생명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깨지기 시작해 끝내 붕괴해, 세계 자체가 다른 세계에 재액을 끼치는 존재로 재탄생하고 만다. 그러나 깨달은들 어찌겠는가? 위대한 마법사와 자날파토스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엔 너무도 미래를 사랑했고, 그렇다고 이미 태어난 생명을 없애기엔 너무도 과거를 사랑했으며, 모두에게 세계의 끝을 알리기엔 너무도 현재를 사랑했다. 결국, 위대한 마법사와 자날파토스는 ‘세계 붕괴’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다만 위대한 마법사는 미래에 기대를 걸었다. 그가 사랑한 고향이 깨져 다른 세계에 재액을 물고 오는 존재로 재탄생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존재를 ‘마도서’라고 명명하여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격하시킨 뒤, 미래의 마법사(이를테면 대법전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든 것이다. ‘마도서’라는 명칭을 만드는 것에 모든 명명의 힘을 쓴 위대한 마법사의 존재는 모든 금서의 주권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누군가의 시선’으로만 남았다. ‘영원 세계’가 붕괴한 뒤 온전히 그곳에 남은 것은 자날파토스뿐이었다. 내용 없는 뼈대에 불과해진 황폐한 세계에 그는 아주 오랫동안 혼자 머물렀다. 그리고 모든 신비를 은닉하는 방침을 택한 대법전에 들어와, 그의 고향이었던 황폐에 이경 ‘자날파토스의 실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계 붕괴’ 현상 자체를 감추기 위해.
--	--

도입 페이지

◆ 서궁

대법전 마법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궁이【미완성 우주란】이 파괴된 직후에 아덴의 섬광을 찾은 것은 예상일이 아닙니다. 시미즈 나기사와 자날파토스는 원탁까지 여러분을 인도하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들은 서궁에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서로 영화를 주고받는지 말이 없는 서궁 마법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라도 하듯, 진정한 모습인 채로 「모든 학문의 시조」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화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모든 학문의 시조」: [자날파토스는 물론 원탁조차 막아내지 못할 정도로 세계 붕괴의 진실에 근접한 마법사는 처음이로군. 무척 흥미로워.]

「모든 학문의 시조」: [만나서 반갑네, ‘아덴의 섬광’. 원탁 소속 서궁들의 연구 결과를 전하고 정식 임무를 하달하고자 이 자리에 부르게 되었어.]

시조의 영화가 끝나면, 서궁에 자리한 얼굴을 가린 마법사들이 그제야 입을 엽니다.

1. 원탁 소속 서궁들의 연구 결과, 이경 ‘겨울 왕국’에서 아기가 몇 명 태어남과 동시에 마을 하나가 마법적 허무에 집어 삼켜진 것은 명백히 ‘세계의 용적 부족’ 때문이며, 대법전 마법사는 절대로 그곳을 찾지 않게 했으나 서적경이나 월경자는 여전히 그곳을 찾고 있어, 이대로라면 붕괴한다.

2. 자날파토스는 스스로 이경이 되어 세계 붕괴 현상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만한 효율은 낼 수 없으나 ‘특이한 이름’을 가진 금서도 용적 부족으로 붕괴하는 세계에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3. 암흑 문고에서 관리한 금서 《아덴의 숲》과 《자날파토스의 실책》은 ‘장소’의 이름을 가지기에 그 용적을 덜어낼 수 있다. 아덴의 섬광이 뇌명정에서 회수한 금서 《내용 없는 뼈대》도 ‘내용이 없다’고 명시된 만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그러나 세계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이경은 하나가 아니기에, 그 현상을 막을 때는 해당 이경의 속성에 가장 근접한 금서를 쓰는 것이 불문율이다. 이경 ‘겨울 왕국’에 가장 알맞은 금서는 아덴의 섬광이 첫 임무에서 회수한 《영구동토永久凍土》다.

5. 그러나 해당 금서는 오래 전 한 마법사가 해당 금서를 관리하던 서위를 쓰러트리고 빼돌렸다. 천애는 그 마법사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가 이경 ‘등불 마을’에 마법 재앙을 일으키며,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덴의 섬광’ 뿐이라고 예지했다. 정확히는 ‘시작이자 끝인 곳에서 아덴의 섬광은 자신만의 종장을 맞이하리라.’라고.

서궁에 모인 원탁 마법사들의 설명이 끝나자, 비어있던 원탁의 12시 방향에 시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엄중히 봉인된 금서 《아덴의 숲》, 《자날파토스의 실책》, 《내용 없는 뼈대》가 시조의 주변에 떠돌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의 시조」: 그러므로 나는 마법 재앙을 해결해 우자들을 보호한다는 우리의 방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임무 하나를 자네들에게 부과하게 되겠네.

「모든 학문의 시조」: 아덴의 섬광, 자네들의 시작이자 끝인 곳에서 세계를 구할 것을 명한다. 이때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를 소멸시키든 봉서하든 문제 삼지 않도록 하지.

「모든 학문의 시조」: 또한, 금서 《영구동토》를 회수하고, 이경 ‘겨울 왕국’에 부과된 마법적 무게를 해당 금서 안에 떨어내는 것을 허가하겠네.

이것은 시조에게 직접 받은 정식 임무이므로, 대법전 장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PC들은 ‘기라르디우스의 종(기본 p. 144)’을 하나씩 무료로 소지합니다.

◆ 이경 ‘등불 마을’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적은 시조가 직접 나타나 명령한 만큼 이 임무는 절대로 실패해선 안 될 것입니다.
각오를 다진 여러분이 수많은 이경의 중계지점인 대법전에서 마법문을 넘어 이경 ‘등불 마을’에 이르자, 이곳은 정말로 여러분이 금서 《영구동토》를 회수했던 인계의 장소를 닮았습니다.

HO ‘금서 《영구동토》 편찬 과정’을 공개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 PC들의 목표는 ‘아덴의 섬광의 시작이자 끝인 곳에서 세계를 구한다.’입니다.

이 시점에서 GM은 금서 《영구동토》의 영향을 받은 해당 이경의 세계법칙 불간섭, 지각차단, 영역보정, 전투활성을 공개하고, 장면표는 「아덴의 섬광_병행 세계 장면표」를 사용함을 플레이어에게 알리십시오.

플레이어는 PC의 마력 결정, 도입 단계의 장서 등을 처리해주시요. 시조에게 받은 정식 임무이므로 분과회를 결성하며, 분과회명은 ‘아덴의 섬광’으로 고정됩니다.

시작 HO은 ‘금서 《영구동토》 편찬 과정’입니다.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HO 금서 《영구동토》 편찬 과정 → MS 다 카포(Da Capo)

→ HO 상점가 → MS 코다(Coda) → 장소에 갇힌 단장 〈얼어붙은 땅〉

→ HO 고등학교 → MS 달 세뇨(Dal Segno)

→ HO 이자요이 하테나 → MS 하테나(はてな, ?)

→ HO 전철 플랫폼 → MS 페르마타(Fermata) → 장소에 갇힌 단장 〈영원히〉

※ MS 하테나(はてな, ?)를 가장 나중에 보는 것이 흐름상 매끄럽습니다. 강제하진 않습니다.

마스터 썬

◆ 다 카포(Da Capo)

발생 조건: HO ‘금서 《영구동토》 편찬 과정’의 뒷면을 보았다.

여러분은 금서 《영구동토》를 편찬하던 당시의 일을 떠올립니다.

금서 《영구동토》가 일으킨 마법재앙은 봄을 맞은 인계에 늦서리(만상晩霜)를 내려 이 서리를 맞은 우자들이 마법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금서 자체는 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초래한 재앙은 대법전의 방식을 생각하면 매우 치명적이었지요.

하지만 그렇기에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는 그 이름의 마법사이기 전부터 여러분의 금서 회수 과정에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에 사랑받았던 시절의 이름이 무엇이었는데는 여전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한, 금서 《영구동토》의 마법재앙은 이경 ‘등불 마을’의 우자들에게는 큰 피해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각인 하나를 가지고 마법도 쓸 수 있어 〈월경자〉 취급을 받는 그들은 봄에 어울리지 않는 추위에 장갑 낀 손으로 뺨을 문지르거나 할 뿐입니다.

이곳 사람 앞에서 염화를 나누거나 허락 없이 각인으로 살피려고 하면 무례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것 같으니, 여러분은 지난 임무에서처럼 수상한 장소를 중심으로 조사하기로 합니다.

HO ‘상점가’, ‘고등학교’, ‘전철 플랫폼’을 공개합니다. **꼭 장면표에서 이 장소가 지정되어야만 조사할 수 있다는 제약은 없습니다.**

◆ 코다(Coda)

발생 조건: HO ‘상점가’의 뒷면을 보았다.

복적이는 손님들에게서 떨어지는 서리에 섞인 마력을 게걸스럽게 삼키는 단장이 있습니다. 보도블록에 깃든 이 단장은 가만히 두면 더더욱 힘을 키울 것 같은데…….

‘대법전 마법사는 이렇게 단장을 무찌르는구나. 이렇게 격렬한 마법전은 처음 봐서 놀랐어.’

문득 들려온 것은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들린 것입니다. 언젠가 사방이 새하얀 늦서리로 덮인 곳을 뛰어다니며 함께 마법재앙을 해결하려고 했던 우자의 목소리가 메아리칩니다.

‘너희는 목숨, 아니다, 존재를 걸고 금서와 싸우는 거지? 너무 위험해지지 않으면 좋을 텐데.’

마법사를 걱정하는 우자는 생전 처음 겪었지요. 어딘지 모를 어둠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음에도 그 걱정이 달가워 쉬이 그의 비밀을 엿보지 못한 것이, 지금은 고스란히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좀 더 빨리 그의 속내를 들출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 페르마타(Fermata)

발생 조건: HO ‘전철 플랫폼’의 뒷면을 보았다.

눈앞을 지나는 전철이 조금 길다 싶었는데, 한참을 바라봐도 전철은 끊이질 않습니다. 전철 레일에 갇든 이 단장은 가만히 두면 더더욱 힘을 키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안전용 펜스도 스크린도어도 없잖아? 그래서 매일 뛰어내리고 싶다고 생각했어.’

문득 들려온 것은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들린 것입니다. 언젠가 사방이 새하얀 늦서리로 덮인 곳을 뛰어다니며 함께 마법재앙을 해결하려고 했던 우자의 목소리가 메아리칩니다.

‘마법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지? 차라리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았을지도.’

거센 바람에 주변에 쌓인 서리가 허공에 날리며 반짝입니다. 영혼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그 우자는 여러분을 도왔지만, 정말 늦어버릴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게 한 것은 그의 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체구보다 조금 큰 교복의 목깃 근처의 멍이나 드러났다 사라지는 손목의 자해흔이 선명히 떠오르는데, 어째서인지 여전히 그 이름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 달 세뇨(Dal Segno)

발생 조건: HO ‘고등학교’의 뒷면을 보았다.

옥상 쪽으로 서둘러 달려가면, 마법재앙의 영향으로 눈뜬 이름 없는 단장의 습격에 패배를 선언한 등불 마을의 고교생 하나가 보입니다. 어쩌서인지 패배의 대가로 그가 젊어져야 할 운명변전이 여러분 중 하나에게 미칩니다.

고교생: 아, 이런. 미안해. 역시 또 다른 나처럼 싸울 순 없는 모양이야.

체구보다 조금 큰 교복의 목깃 근처의 멍과, 손을 내저을 때마다 드러났다 사라지는 손목의 자해흔. 그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낯익은 것은, 역시 그가 언젠가 섬광과 함께 마법재앙을 해결하고 싶어 했던 그 우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교생: 와줘서 고마워, 아덴의 섬광. 나는 이자요이 하테나라고 해.

이자요이 하테나: 처음 뵈겠습니다라고 해야 할지 오랜만입니다라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은 그 이름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를 기억해냅니다. 만상(晩霜) 속에서 숨져가던 만상(萬象)을 온전히 떠올립니다. 분명 그 안에서 죽음을 맞았던 사람의 모습을 한 병행 세계의 주민이 주저앉은 채 여러분을 올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뜹니다. 펍 눈부신 듯한 모습으로요.

HO ‘이자요이 하테나’를 공개합니다.

◆ 하테나(はてな, ?)

발생 조건: HO ‘이자요이 하테나’의 뒷면을 보았다.

인계의 우자였던 무소속 서적경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와 등불 마을의 이자요이 하테나는 병행 세계의 법칙으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를 만나는 것으로 과거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인계의 이자요이 하테나가 단장을 떼내어져 죽기 전까지 느꼈던 마음의 나락도.

흔한 이야기입니다. 등불 마을의 이자요이가 월경자이듯 인계의 이자요이도 영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나 등불 마을에서는 마법적인 것이 흔하게 쓰이지만 인계는 대법전에 의해 신비가 은닉되고 있어, 등불 마을의 이자요이가 겪지 않은 지옥을 인계의 이자요이는 겪어야만 했다는, 정말이지 흔한 이야기.

이자요이 하테나: 어째서 보지 못하는 거야? 저곳에 중국에서 온 흡혈귀가 있잖아. 사람보다 큰 발톱을 늘어트리고 불을 머금은 용도, 화관을 쓴 채로 너희 주변을 뛰어다니는 요정도!

우자 1: 하하, 소설 쓰고 앉았네, 이 거짓말쟁이!

우자 2: 맨날 공책에 글을 끄적이다가 돌아버린 거 아냐?

이자요이 하테나: 아냐, 아니야. 정말 거짓말이 아니야. 아니, 응, 거짓말이니까 내 공책 돌려줘.

금서 《영구동토》가 인계의 한 도시에서 마법 재앙을 일으켰을 때, 찢어진 공책을 안은 이자요이가 들었던 금서의 속삭임은 단순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해줄게. 네가 거짓말쟁이가 아님을 모두에게 증명해줄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거짓이 아님이 증명된다면, 그 결과로 죽어도 상관없다고 이자요이 하테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덴의 섬광이 아덴의 섬광이기 전, 여러분은 이자요이의 몸을 차지한 단장을 통해 분명 그 마음을 듣고도 그의 죽음이 안타까워 오래도록 앓아야 했습니다.

이자요이 하테나: ……이번에는 늦지 않게 나를 구해줬구나?

이자요이 하테나: 하하, 역시 또 다른 나의 말대로, 이 모든 일을 반복하길 잘했어.

등불 마을의 월경자, 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자요이 하테나라고 이름을 밝힌 그가 두 손으로 자기 눈을 감추고 입술을 휩니다. 그러자 교복을 입은 그에게서 분리되듯 학원기사단 휘장이 달린 학원 제복을 입은 그가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는 단장 하나조차 물리치지 못하고 정신을 잃은 월경자와, 서위를 쓰러트리고 금서를 훔쳐낼 정도의 서적경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 게다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의 내 이름까지 다시 기억해낸 모양이니,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어, 아덴의 섬광.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 우리에게 이름이 절대적임을 모르진 않을 거야. 나는 마법사가 되면서 만상(萬象)에 만상(晩霜)이 내린 정경에 홀려 그 근원이었던 금서를 훔쳐어. 간단하지?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 그러던 중에, 온 이경에 자신을 퍼트리고 세계 붕괴를 막을 방법을 찾던 겨울 왕국의 여왕을 만났어. 그에게서 너희가 ‘세계 붕괴’라는 것에 대해 듣고 막으려고 움직이게 된다는 말을 들었지.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 타임 패러독스가 있다고? 글썄, 혼혈주의자인 그가 존재한 ‘백만세계’가 꼭 우리의 과거이기만 하리라는 법은 없잖아?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 나는 비극이 싫어. 여왕의 쌍둥이에게 내 죽음이 너희에게 비극으로 남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 그 망가진 초점구를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고 생각했지.

여러분의 품속에서 빛나고 있을 초점구에 대해 말하며,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늦서리를 녹이려 했던 이자요이 하테나가 울적하지만 아름다운 미소를 짓습니다.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 그러니까 내가 만난 가장 멋진 마법사들, (PC들의 마법명). 시작이자 끝인 이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게 해줘.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 그 결과로 내가 사라지는 것쯤은 바라는 바야. 어차피 우자였던 나는 언제나 소멸을 꿈꾸었으니 말이야. 하하, 어린 우자의 삶도 상당히 고달프다고?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 하지만 너희가 그때처럼 우자 하나도 구하지 못하는 마법사이길 바라진 않아. 부디 내가 마련한 무대에서 너희의 종막을 맞아줘. 만상을 녹이고 세계를 구해줘.

여러분의 마지막 망설임 하나마저도 끌어안으려는 듯 두 팔을 벌리며 그는 선언합니다.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는 <아덴의 섬광>에게 마법전을 신청한다!

5랭크 무소속 서적경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의 선공으로 마법전을 행합니다. PC가 패배 선언을 할 경우, 그는 PC가 가진 단장 중 하나를 승리 보상으로 가져가 박탈이 무효화되며, 클라이맥스 페이지는 금서전/서적경전으로 분단전을 치르게 됩니다.

클라이맥스 페이지

금서 《영구동토永久凍土》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강한 금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향이 미치는 모든 우자가 마법을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금서전을 준비하며, 여러분은 이경 ‘등불 마을’의 모든 사람이 손에 입김을 불며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서의 주권은 모든 것을 숨지게 만드는 흑한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숨통을 틀어막는 이 금서에게 언젠가 ‘동료’ 혹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를 빼앗겼습니다. 문득 뇌신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심장을 뽑아 바치는 듯한 대가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가 손에 쥔 것의 가치조차도 헤아리지 못한다.’

더는 망가진 것이 아닌 초점구를 여러분의 상징으로 들고, 시작이자 끝이 될 싸움으로 모든 것을 되찾읍시다. 아덴의 섬광. 여러분이 그 이름대로 빛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백만세계의 목숨 앞에서!

엔딩 페이지

무사히 금서전을 마치면, 세계를 덮은 늦서리가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여러분은 시조에게 금서 《영구동토》를 통해 이경 ‘겨울 왕국’의 용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허락받았기에, 금서전 결계를 쳐준 문호 마법사들이 연 마법문을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냐(Женя) 앵커가 있다면 그들을 다시 만나 세계를 구했으니 대법전에 복귀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의 처리는 자유롭습니다만, 그가 ‘이자요이 하테나’로서 PC들과 함께 했음을 알게 된 PL은 되도록 그를 구제하고 싶을 것입니다. ‘지배’ 속성의 앵커로 두어도 좋고, 소속 없는 서적경이니 대법전에 복귀하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해피엔딩을 위해 GM이나 PL이 원하는 장면이 있다면 마음껏 묘사에 포함한 뒤, 해당 캠페인을 종료해주십시오.

이번 시나리오에서 PC들의 사명은 ‘시작이자 끝인 곳에서 세계를 구한다’입니다. 엔딩 페이지에 도달했다면 사명 달성 공적점은 무조건 3점으로 합니다.

핸드아웃

HO ‘금서 《영구동토》 편찬 과정’	(앞면) 아덴의 섬광이 그 이름을 가지기 전에 편찬했던 금서. 금서 《영구동토永久凍土》는 단장 〈영원히〉와 단장 〈얼어붙은 땅〉으로 나뉘어 3계제 승급 임무에 적절했다. 그러나 단장 〈영원히〉가 한 우자에게 빙의된 것을 너무 늦게 알아채 구할 수 없었고, 그 후회가 망가진 초점구에 서리가 앉는 동안 비밀결사 아덴의 섬광을 만들어냈다.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는 이 과정까지 포함해 뇌명정이 온갖 세계에 퍼트린 소문에 뼈대를 만들어 아덴의 섬광이라는 이름을 공공연히 퍼트려 두었다.
	(뒷면) 마스터씬 ‘다 카포(Da Capo)’가 발생한다. 금서 《영구동토永久凍土》가 일으킨 마법재앙은 봄을 맞은 인계에 늦서리(만상晩霜)를 내려 이 서리를 맞은 우자들이 마법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는 그 이름의 마법사이기 전부터 당신들의 금서 회수 과정에 조력할 수 있었다. 그 마법재앙이 다시 일어나고 있지만, 이경 ‘등불 마을’의 우자들은 원래 각인 하나를 가지고 마법도 쓸 수 있는 상태여서 봄에 어울리지 않는 추위 외의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HO ‘상점가’	(앞면) 북적이는 손님들이 뺨에 서리가 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 있다. 그들이 간간이 자기 뺨을 부비면 서리가 흰 가루가 되어 떨어진다.
	(뒷면) 마스터씬 ‘코다(Coda)’가 발생한다.

	북적이는 손님들에게서 떨어지는 서리에 섞인 마력을 게걸스럽게 삼키는 단장이 있다. 보도블록에 갇든 이 단장은 가만히 두면 더더욱 힘을 키울 것 같다. 단장 <얼어붙은 땅>의 데이터를 공개한다.
--	--

HO '고등학교'	(앞면) 학교가 쉬는 날인지, 경비원은 자리에 앉아 졸고 있다. 그런데, 옥상 쪽에서 낯선 단장의 기척과 함께 익숙한 불길함이 느껴진다.
	(뒷면) 마스터썬 '달 세노(Dal Segno)'가 발생한다. 마법재앙의 영향으로 눈뜬 이름 없는 단장의 습격에 패배를 선언한 등불 마을의 고교생을 발견했다. 어째서인지 그가 받은 운명변전이 당신들 중 하나에게 미친다. PC들 중 하나가 마법사 운명변전표의 효과를 적용받고, HO '이자요이 하테나'를 공개한다.

HO '전철 플랫폼'	(앞면) 전철이 오가는 곳과 사람들이 줄 서는 곳 사이에 안전용 펜스조차 없는 전철 플랫폼이다. 이러면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당신들뿐인 것 같다.
	(뒷면) 마스터썬 '페르마타(Fermata)'가 발생한다. 눈앞을 지나는 전철이 조금 길다 싶었는데, 한참을 바라봐도 전철은 끊이지 않는다. 전철 레일에 갇든 이 단장은 가만히 두면 더더욱 힘을 키울 것 같다. 단장 <영원히>의 데이터를 공개한다.

HO '이자요이 하테나'	(앞면) 단장에게 패배 선언을 한 뒤 또 다른 자신처럼은 싸울 수 없다고 말한 이 고교생은 분명히 당신들에 대해 알고 있다. 당신들도 분명히 이 고교생에 대해 알고 있다. 그 이름은 분명 十六夜 はてな, 보름 다음 밤의 수수께끼라고 적는다.
	(뒷면)

	그에게는 무소속 서적경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가 병의되어 있다. 병행 세계의 법칙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그들은 서로를 만나는 것으로 과거를 공유하게 되었다. 인계의 이자요이 하테나가 단장을 떼어져 죽기 전까지 느꼈던 마음의 나락도.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의 데이터를 공개하며, 마스터썬 ‘하테나(はてな, ?)’가 발생한다.
--	---

에너지 데이터

「만상을 상상하는 절대자」							
공격력	4	방어력	4	근원력	5	마력	11
랭크	5(4계제)			학파		무소속	
영역	꿈	특기	《정적》《분노》《우연》《미래》/《상상想像》				
진정한 모습	이목구비 없이 미소 짓는 자 / 공격 강화(마법전 시작과 동시에 사용)						
장서	【긴급소환】【처녀소환 《우연》】【마왕소환 《분노》】【주술포】【충동】【탄막】【소거】						

금서 《영구동토(永久凍土)》							
공격력	4	방어력	4	근원력	4	마력	20
영역	힘	특기	《폭풍》《물》《충격》《시간》				
장서	박탈하지 않은 장서 전부.						
참고	봉토로서 등불 마을 주민의 마력을 흡수해 단장들의 마력+a=금서 마력						

단장 <영원히> (봉토)									
공격력	2	방어력	4	근원력	4	마력	5	일시적 마력	5
영역	별	특기	《폭풍》《시간》						
장서	【홍조】【연옥】								

빙의대상	전철 플랫폼. 초기 빙의 심도 1. 사이클 종료 시 상승.
참고	초기 마력 7에서 금서 마법 습득으로 -2. 전투 시작 시 《시간》의 기사를 소환.

단장 <얼어붙은 땅> (봉토)									
공격력	4	방어력	2	근원력	4	마력	6	일시적 마력	5
영역	힘	특기	《물》《충격》						
장서	【마왕 소환 《물》】【책꽂이】								
빙의대상	상점가. 초기 빙의 심도 1. 사이클 종료 시 상승.								
참고	초기 마력 7에서 금서 마법 습득으로 -1. 전투 시작 시 《충격》의 처녀를 소환.								

후기

시나리오 카드에는 @62s_BOX님의 프리소스를 사용하였고, 문서 정리에는 @SIHAST님의 양식을 참고했습니다. 멋진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캠페인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3계제 학원 마법사가 4계제로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대모험을 겪는 캠페인을 적고 싶다는 생각이 무려 1년을 넘겨 시나리오라는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각 시나리오는 **아덴의 어린나무들(발단)/길잃은 섬광(전개)/뇌명과 맹목의 틈새(위기)/이윽고 빛은 놓여나며(절정)/만상을 녹인다(결말)**의 구조를 완벽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3계제로 오르는 임무에서 한 우자를 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학원 마법사라면 마지막은 꼭 그 우자와 다시 만나야지요.

캠페인 이후로도 아덴의 섬광이 어딘가로 모험을 떠난다면, 이 캠페인을 통해 맺은 수많은 인연이 힘이자 닳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덴의 섬광에게 구원받은 모든 NPC를 대신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어딘가에서 만나 뵙기를!